

# 개회선언

조 성철

제 7 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준비위원장  
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실행위원회, 유니벨재단,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 ‘제 7 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실행위원회의 공동대표이신 김성이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님, 오하시 켄사쿠 일본사회사업대학 학장님, 윤기 마음의 가족 이사장님 과 유니벨재단의 이토 이사오 이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조강연과 토론을 맡아 주신 한국과 일본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적 욕구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세계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사회복지전문가들은 그동안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은 한일 양국의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3 년 대한민국에서 ‘제 1 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이 개최된 이래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지도자들은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국제협력과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심포지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제 7 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제 7 회 심포지엄은 「고령화사회와 소셜워커의 역할-사회복지인재의 국제 교류를 향하여」를 주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 주제는 한일 양국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양국의 사회복지사들이 공동된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실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양국이 협력해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70 년 4.53 명에서 계속 하락해 지난해에는 1.19 명에 그쳤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하는 기록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30 년 마다 경제활동인구가 40%씩 줄어 곧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305 년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소멸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 고령화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고, 고령화사회에 대처해나가기 위한 대처방안과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한일 양국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비교·연구하여 사회복지사들의 국제교류가 확대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이 고령화사회에 대처하는 사회복지계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과 양국 사회복지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 및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협력의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지식을 넓히고 비전을 공유하는 나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 심포지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국내외에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開会宣言

趙 聖鐵

第7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準備委員長  
韓国社会福祉士協会会長



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ユニバーサル財団、韓国社会福祉士協会が共同して「第7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を開催できることを心より嬉しく思います。今回のシンポジウムを積極的に支援して下さった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の共同代表である金聖二前保健福祉家族部長官、大橋謙策日本社会事業大学学長、尹基こころの家族理事長とユニバーサル財団の伊藤勲理事長に厚く感謝いたします。同時に基調講演と討論を引受けて下さった韓国と日本の関係者の皆様にも感謝申し上げます。

今、世界は変化しています。変化する環境の中で社会的ニーズも変化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変化は全世界的な趨勢であり、私たちはこのような趨勢を「世界化」と呼んでいます。世界化、国際化時代に歩調をあわせて行くために韓国と日本両国の社会福祉の専門家たちは、この間、多様な国際交流活動を広げて来ました。「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は日韓両国の多様な国際交流活動の中でも、最も順調に進められている模範的な事例ではないかと思えます。2003年韓国で「第1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が開催されて以来、日韓両国の社会福祉のリーダーたちは、社会福祉の分野での国際協力と社会福祉実践の専門性の増進を目的に、韓国と日本で交互に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今年で第7回目を迎えました。

今年、開催される第7回シンポジウムは、「高齢化社会と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社会福祉人才の国際交流に向けて」を主題に開かれます。このテーマは日韓両国にとって、最も急を要する課題である少子高齢化問題について、両国の社会福祉士たちが共通の危機意識を持ち、社会福祉的な観点からの実践的な対応方法を模索し、両国が協力して取り組もうという主旨で企画しました。韓国の出生率は、1970年の4.53人からずっと下落し、昨年には1.19人とどまりました。これは経済協力開発機構(OECD)国の中でも、最下位に属する記録です。このような傾向が続くと、30年ごとに経済活動人口が40%ずつ減り、すぐに超高齢化社会に突入し、2305年には韓国人が地球上から消滅するという、凄まじい見通しも出ています。本シンポジウムを通じて、高齢化社会の現在と未来を見通し、高齢化社会に対処して行くための対処方法と社会福祉士たちの役割を模索したいと思えます。また、日韓両国の社会福祉士たちの役割を比較研究し、社会福祉士たちの国際交流を拓げる政策を構想したいと思えます。

今回の「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が、高齢化社会に対応する社会福祉の望ましい方向を模索する論議の場と、両国の社会福祉の専門家たちのネットワーク及び人的交流の活発化、協力の場になるように期待します。同時に、韓日両国の社会福祉の専門家たちが知見を広げ、ビジョンを共有するきっかけになるように願っています。

重ねて、本シンポジウムの開催を支援して下さった関係者のみなさん、国内外から参加して下さったすべての方々に感謝し、私のごあいさつ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